

보도자료

2011년 12월 12일(월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 김재철 과장(☎750-1710)
국제협력담당관실 손창용 사무관 (☎750-1715) cyson@kcc.go.kr**방통위, “Korea Content Festival 2011” 행사 개최
- 국내 방송콘텐츠 동남아 시장(베트남, 필리핀) 진출 확산 지원 -**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시중)는 한국 방송콘텐츠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12월 13일 베트남 하노이, 12월 15일 필리핀 마닐라 등 동남아 2개국에서 “Korea Content Festival 2011”행사를 개최한다.

이번 행사는 최근 한류가 주춤한 동남아 지역에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, 과거 큰 인기를 얻었던 '겨울연가', '대장금' 등 한류 콘텐츠의 뒤를 이어 새로운 방송콘텐츠의 동남아 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.

이번 행사에는 KBS, KBS미디어, MBC, EBS, 아리랑TV, YTN, CJ E&M 등 주요 방송사업자가 참여하여 현지 방송사업자들에게 자사 홍보 및 최신 드라마, 다큐멘터리, 3D 콘텐츠와 같은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.

특히 ‘영광의 재인’, ‘나도 꽃’, ‘꽃미남 라면가게’ 등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부터 ‘슈퍼피쉬’, '북극의 눈물', 'Pops in Seoul' 등 다큐멘터리, 'Travelog', ‘한식, 신한류를 꿈꾸다’ 등 시사·교양 프로그램, ‘엄홍길, 바다로가다’, 4minute, ‘신들의 땅, 앙코르’ 등 3D콘텐츠까지 한국의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적극 홍보·판매하여 동남아 지역에 한류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.

또한, 방통위는 베트남, 필리핀 정부기관과 방송분야 협력 및 동남아 권역의 한국 방송콘텐츠 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, 방송콘텐츠 상영회 및 수출 상담회를 통한 각종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.

방통위 관계자는 “이번 "Korea Content Festival 2011" 행사를 계기로 동남아지역에서 우리 방송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끝.